

영국 혁명

[★청교도 혁명(1642 ~ 1649)]

01. 혁명 전 16 ~ 17세기의 영국 사회

- 장원제가 무너지면서 자영 농민층 형성
- 인클로저 운동을 주도하며 토지를 축적한 **젠트리 계층**이 사회 지도층으로 성장
- 상공업자, 전문직 계층 등 **시민 계급의 성장**
- 대부분 청교도였던 젠트리와 시민이 의회에 진출하여 다수 의석 차지
: 왕실의 부패 비판, 의회 중심의 입헌주의 전통을 지키려는 노력

02. 혁명의 발단

- 제임스 1세(재위 1603 ~ 1625)
: 1567년 스코틀랜드 왕으로 즉위(제임스 6세)
: 1603년 **스튜어트 왕조**(~ 1714) 개창
: **왕권신수설 고집, 의회의 전통 무시, 자의적 조세 부과**
: 국교회를 강화하여 **청교도 탄압** → 청교도의 신대륙 이주(Pilgrim Fathers, 1620)
- **찰스 1세**(재위 1625 ~ 1649)
: 앙리에타 마리아(Henrietta Maria, 앙리 4세의 딸)와 결혼(1625)
: 프랑스, 에스파냐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자의적인 조세 부과 ⇨ 의회의 『**권리청원**』 제출과 승인(1628) ⇨ **의회 해산(1629)**
: 스코틀랜드와의 전쟁 비용 마련을 위해 의회 소집(1640) ⇨ **의회**는 왕의 실정을 비판하고 **과세 요구 거부** ⇨ 국왕이 의회를 무력으로 탄압

▣ 젠트리(gentry)

신분상으로 귀족의 아래, 자영농의 위에 위치하는 계층으로, 대체로 지주가 그 중심을 이루었다. 법률가,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젠트리에 포함되었다.

03. 혁명의 전개

- ① **왕당파와 의회파 사이에 내전 발생(1642)**
- ② 철기대(鐵騎隊)를 이끈 크롬웰의 지도로 **의회파 승리**
- ③ **찰스 1세 처형(1649. 1월)과 공화정 수립(1649)**

잉글랜드 및 그에 속하는 모든 영토의 국민은 앞으로 자유 공화국의 국민임을 확정하는 바이다. 또한, 이들 국민은 앞으로 자유 공화국인 이 나라에서 최고 권위를 지닌 의회에 국민의 대표로 파견된 사람들과, 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관리 및 행정가로서 임명된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며, 국왕이나 상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04. 크롬웰(1599 ~ 1658)의 정치

- 왕당파의 거점에 대한 원정 단행 → **아일랜드(1649), 스코틀랜드(1650)**
- 중상주의 정책을 반영한 **항해법(= 항해조례)** 제정(1651) → 네덜란드와 전쟁 발발
- **의회 해산(상원 해산, 하원 의원들의 임명직 전환)**, 성문 헌법인 『통치 헌장』 제정
- **호국경(Lord Protector) 취임(1653)**
: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세 나라를 통치
- 청교도에 입각한 금욕적 독재 정치 실시
: 금주령, 극장 폐쇄, 도박·경마 금지, 예배 참석 의무화



〈크롬웰〉

영국 혁명

[★ 명예혁명(1688 ~ 1689)]

01. 혁명의 배경

- 찰스 2세(재위 1660 ~ 1685)
 - : 프랑스 망명(1646)
 - : 스코틀랜드 의회에 의해 왕으로 선언됨(1649)
 - : 우스터에서 크롬웰 군대에 대패(1651)
 - : 크롬웰 사후(1658) 의회의 왕정복고 결정에 따라 즉위(1660)
 - : 청교도 혁명의 성과를 인정했지만 신앙의 자유를 명분으로 가톨릭교도 우대 정치 실시
 - ↳ 의회의 심사법(1673 ~ 1828,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 금지), 인신보호법(1675) 제정
- 의회의 구분
 - : 토리당[국왕 옹호, 국교회 지지, 유적(流賊), → 보수당]
 - : 휘그당[로크의 정치 이론에 영향, 입헌군주제, 의회 존중, 폭도(暴徒), → 자유당]
 - : 휘그당의 의회 장악
- 제임스 2세(재위 1685 ~ 1688)
 - : 친(親)가톨릭 정책 추진
 - ↳ 심사법, 인신보호법 무시
 - : 전제 정치 강화



〈찰스 2세의 즉위〉

▣ 토리당(Tory Party)과 휘그당(Whig Party)

찰스 2세가 자신의 동생 요크 공작 제임스(후일 제임스 2세)를 차기 왕으로 세우려 하자 의회는 요크 공의 왕위 계승을 지지하는 세력(토리)과 반대하는 세력(휘그)으로 나뉘었다. 이후 토리와 휘그는 일종의 여당과 야당을 형성하면서 토리는 보수당으로 휘그 세력은 자유당으로 이름을 바꾸어 19세기 영국 의회 정치를 이끌었다.

02. 혁명의 전개

- ① 의회의 제임스 2세 폐위(1688)
- ② 제임스 2세의 딸인 메리 공주와 그녀의 남편인 윌리엄을 공동 왕으로 추대
- ③ 메리 2세(재위 1689 ~ 1694), 윌리엄 3세(재위 1689 ~ 1702)
- ④ 의회가 제출한 『권리장전』 승인(1689)



〈권리장전을 승인하는 메리와 윌리엄〉

03. 혁명의 결과

- 의회 중심의 입헌 군주제 토대 마련
- 앤 여왕(재위 1702 ~ 1714)
 - :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
 - :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대영 제국 수립(1707)
- 조지 1세(재위 1714 ~ 1727, 영어 NO!)
 - : 독일 하노버 가(家) 출신
 - : 하노버 왕조(1714 ~ 1901) 개창
 - : ‘왕은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
 - ↳ 의회 중심, 내각 책임제의 정치 전통 수립

▣ 내각 책임제

의회의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행정 조직적인 내각을 구성하는 정치 체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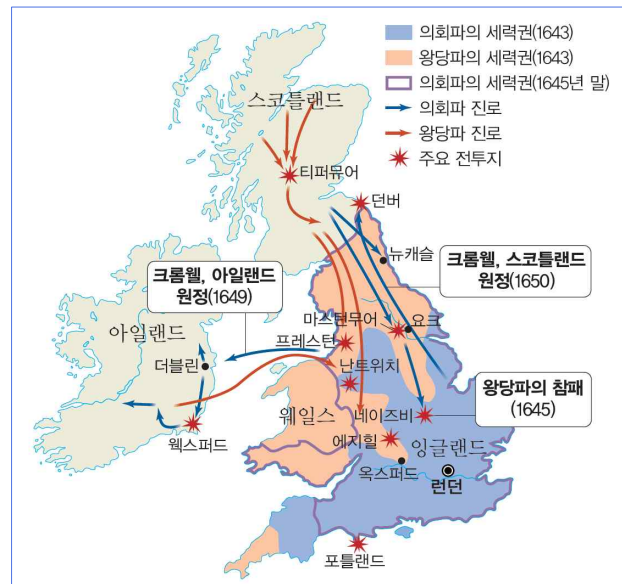


■ 권리청원(1628)

현재 의회에 소집된 성직자, 귀족, 평민은 지극히 높으신 국왕 폐하께 다음과 같이 탄원한다.

제1조 …… 폐하의 신민은 의회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것이 아니면 어떠한 세금, 차입금, 기부금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부조금을 내도록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누린다.

제3조 …… 누구도 적법한 판결과 국법에 따르지 않고서 함부로 체포·구속되지 않는다. 자유인은 소유권과 특권 및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관습을 침해당하거나, 법의 보호 밖에 방치되고 추방되는 …… 일이 없다.



<청교도 혁명의 전개 과정>

■ 항해법(1651 ~ 1849)

아시아·아프리카의 각 지역과 각각에 부속된 섬, 각 대륙의 일반 지도에 기재되어 있는 각 섬, 잉글랜드와 기타 제국의 식민지 - 이상의 전 지역에서 자라고, 생산되고, 제조된 물자들이, 잉글랜드 공화국과 아일랜드 본국과 여러 속령에서 수입하는 경우, 본 공화국이나 식민지의 국민이 정식 선주로 소유한 배로만 하며, 다른 어떠한 배로도 수입할 수 없다.

■ 권리장전(1689)

종교와 법과 자유가 전복되는 위험에 다시 처하지 않도록, 국민의 완벽하고 자유로운 대표로서 모인 성직자, 귀족, 평민들은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들의 옛 권리와 자유를 옹호하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제1조 국왕은 의회의 동의 없이 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거나, 법의 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는 권력이 있다는 주장은 위법이다.

제4조 국왕이 의회의 승인 없이 의회가 승인하는 것보다 장기간에 걸쳐, 또 의회가 승인하는 것과 다른 방법으로 왕이 쓰기 위한 금전을 징수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6조 의회의 동의가 없는 한, 평화 시에 왕국 내에서 상비군을 징집하거나 유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제8조 의원의 선거는 자유롭지 않으면 안 된다.

제9조 의회 내에서 연설하고, 토론하거나, 의사 진행한 것으로 의회 이외의 법정이나 장소에서 고발당하거나 심문받지 않는다.

개념 Check

- ① 찰스 1세가 의회의 승인 없이 과세하고 청교도를 탄압하자, 의회는 ()을 제출하였다.
- ② 크롬웰은 1653년 ()에 취임하여 청교도주의에 입각한 금욕적인 독재 정치를 펼쳤다.
- ③ 찰스 2세가 가톨릭교도를 우대하자 의회는 비국교도의 공직 취임을 금지하는 ()을 제정하였다.
- ④ ()으로 공동 왕으로 즉위한 메리와 윌리엄은 ()을 승인하였다.
- ⑤ ()년 앤 여왕은 에스파냐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스코틀랜드를 병합하여 대영 제국을 성립하였다.

유형 CHECK!!

01

(기) 국왕의 재위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20-6월 모의평가]

국왕의 권한과 왕위는 부친이 사망하는 시점에 선언의 예식 없이도 이양되는 것이다. 충성스러운 상·하원의 의원들은 오랜 기간의 무력 충돌과 참극으로 인해 이제야 선언의 예식을 거행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우리의 주권자 (가)이(가) 서거하였을 때, 그가 보유하고 있던 잉글랜드와 모든 왕국들의 왕위와 주권, 그리고 권리는 혈통에 의한 적법한 계승 절차를 거쳐 찰스 2세에게 부여될 것이다.

- ① 심사법이 제정되었다.
- ② 항해법이 폐지되었다.
- ③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 ④ 토리당과 휘그당이 대립하였다.
- ⑤ 의회가 권리청원을 제출하였다.

03

다음 상황이 전개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고른 것은?
[2016-7월 교육청]

스코틀랜드가 반란을 일으키자, 찰스 1세는 십여 년 만에 의회를 소집하여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경비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의회는 세금 징수를 반대하고 국왕의 실정을 비판하였다. 이에 국왕이 무력을 동원하여 의회를 탄압하면서 의회파와 왕당파 사이의 내전이 발생하였다.

(가)	(나)	(다)	(라)	(마)
수장법 공포	권리 청원 승인	공화정 수립	스튜어트 왕정복고	권리 장전 승인
				대영 제국 성립

- ① (가) ② (나) ③ (다) ④ (라) ⑤ (마)

02

(가), (나) 사건 사이의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2017-수능 변형]

(가) 부르봉 왕조를 개창한 국왕이 위그노 전쟁의 혼란을 수습하며 위그노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낭트 칙령을 발표하였다.

(나) 유럽 각국이 종교 분쟁 등으로 야기된 30년 전쟁의 혼란을 수습하며 칼뱅파의 종교적 자유를 허용하는 조약을 체결하였다.

- ① 트리엔트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 ② 크롬웰이 호국경에 취임하였다.
- ③ 상수시 궁전이 건립되었다.
- ④ 영국이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였다.
- ⑤ 아우크스부르크 종교 회의가 체결되었다.

미국 혁명

[★미국의 독립 혁명(1773 ~ 1783)]

01. 혁명 전의 북아메리카

- 17세기 신앙의 자유와 경제의 기회를 찾아 많은 영국인들이 이주 : 버지니아(영국이 미국에 세운 최초의 식민지, 1607)
- 18세기 초 동부 해안에 13개의 식민지 형성
 - : 영국 총독 파견
 - : 독자적 의회 구성 등 광범위한 자치권 행사
- 로크의 자연권 사상과 사회계약설, 루소의 계몽사상 유행



〈메이플라워호 서약(1620)〉

02. 혁명의 배경

- 영국의 식민지 정책 변화
 - : 프렌치·인디언 전쟁(⇔ 프랑스, 7년 전쟁, 1755 ~ 1763)으로 재정난 심화
 - : 식민지에 인지세·차(茶)세, 타운센드 세(인지세 폐기 이후 제정, 1767) 등 각종 세금 부과
 - : 식민지 무역 활동 통제 등 중상주의 정책 강화
- 식민지 주민의 조직적인 납세 거부 운동 전개(1765)
 - : ‘대표 없는 곳에 과세 없다.’
 - : 차(茶)세만 남기고 철회

▣ 인지세법(1765)

영국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발행하는 상업 및 법률 서류, 신문, 팸플릿, 카드, 달력 등에 1파운드의 세금을 부과하던 법이다.

03. 혁명의 전개

- ① 보스턴 차(茶) 사건(1773)
 - 영국 동인도 회사 소속 선박 습격
 - 영국 정부가 보스턴 항을 폐쇄하며 강경 조치
- ② 필라델피아 제1차 대륙 회의(1774)
 -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본국에 항의
 - 영국의 입법권 부정, 영국 상품 불매 등을 결의하는 선언문 발표



〈보스턴 차(茶) 사건〉

1. (북아메리카에 위치한 영국) 식민지 주민은 생명·자유·재산을 향유할 권리가 있으며, 이들은 어떠한 주권적 권력에도 자신들의 동의 없이 상기 권리를 양도한 일이 전혀 없다. ……
4. 영국 정부의 기반은 인민이 입법 회의에 참가하는 권리에 있다. 또 영국의 식민지인은 영국 의회에 대표를 보내지 않고, 지역적 상황과 그 밖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표를 보낼 수도 없기 때문에 각각의 식민지에 설치한 입법 기관에서 자유롭게 독립적인 입법권을 부여받고 있다.

- ③ 렉싱턴 전투(1775)
 - 영국군과 식민지 민병대의 충돌

[★미국의 독립 혁명(1773 ~ 1783)]

03. 혁명의 전개

④ 필라델피아 제2차 대륙 회의(1775 ~ 1781)

- 대륙군 창설, 워싱턴(1732 ~ 1799)을 총사령관으로 임명
- 토마스 페인(1737 ~ 1809), 『상식』 발표(1776. 1월)

아메리카는 지금까지 영국과 결합해서 번영해 왔으니 앞으로도 계속 결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주장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다. 영국은 조국이 아닌가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렇다면 영국의 행동은 더욱 부끄러운 것이다. 짐승도 자기 자식을 잡아먹지는 않는다. 영국과 결합함으로써 당하는 손해와 불이익을 셀 수 없을 정도이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물론, 인류 전체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려면 이 제휴를 중지해야 한다. 피해자의 피가, 자연의 흐느낌 소리가, 이제는 영국에서 떨어져 나와야 할 때라고 외치고 있다. ……

- 독립 선언문 공포(1776. 7월 4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분명한 진리로 믿는다.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참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권리 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를 수립하였으며,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국민의 동의에서 발생한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라도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언제든지 그 정부를 바꾸거나 없애고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잘 이룩할 수 있는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이다.

⑤ 독립 전쟁

- 초반 열세 ⇨ 새러토가 전투(Battles of Saratoga, 1777. 9월) ⇨ 전세 역전
- 프랑스, 영국에 선전포고(1778. 6월)
- 에스파냐,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 등 열강의 식민지 지원
- 요크타운 전투(1781) 승리
- 파리 조약(1783)으로 독립 승인 → 13개 공화국 성립

제1조 영국 국왕 폐하는 미합중국, 즉 뉴햄프셔, 매사추세츠만(灣) …… 으로 구성된 연합 국가가 자유로운 주권 국가이자 독립 국가임을 인정한다.

제7조 영국 국왕 폐하와 미합중국, 그리고 영국 신민과 미합중국 시민 사이에 영원한 평화 상태를 실현하기 위해 …… 모든 전투 행위를 중지한다.

04. 아메리카 합중국 성립(1789)

- 연방 헌법 제정(필라델피아 연방 회의, 1787)
: 연방주의, 삼권 분립, 공화주의에 입각, 13개 주(州) 성립
- 워싱턴을 연방 정부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1789)

05. 혁명의 의의

- 프랑스 혁명에 영향
- 라틴 아메리카 식민지 독립 운동에 영향

개념 Chec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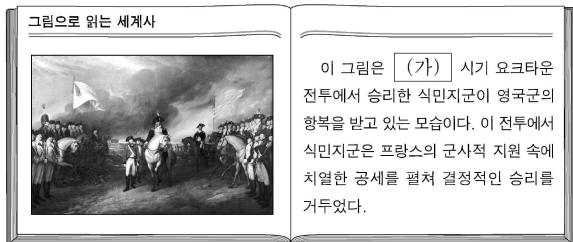
- ① 영국의 중상주의 정책에 반발하여 식민지인들이 1773년에 ()을 일으키자, 보스턴 항이 폐쇄 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었다.
- ② 필라델피아 제2차 대륙 회의에서 발표된 미국의 ()은 민주주의의 제반 원칙을 담고 있다.
- ③ 1781년 () 전투 승리 이후 북아메리카 식민지인들은 () 조약으로 독립을 승인받았다.
- ④ 독립 전쟁 이후 북아메리카의 13개 주는 물가 폭등 등의 사회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삼권 분립에 바탕을 둔 ()을 제정하여 연방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⑤ 독립 전쟁 당시 총사령관이었던 ()은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유형 CHECK!!

01

(가) 혁명의 결과로 옳은 것은?

[2021-6월 모의평가]



- ① 항해법이 제정되었다.
- ② 보스턴 차 사건이 발생하였다.
- ③ 베스트팔렌 조약이 체결되었다.
- ④ 아우크스부르크 회의가 이루어졌다.
- ⑤ 연방주의에 기초한 공화국이 탄생하였다.

02

(가), (나) 문서기 작성된 시기 사이에 발생한 사건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2020-9월 모의평가]

(가) 영국 의회는 아래 세금들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아메리카 식민지 법정에 제출하는 진술서, 소장, 답변서, 이의 신청서 등의 문서에 인지세 3펜스를 부과한다. …… 신문, 잡지, 소책자 등에 실린 각각의 광고에 2실링을 부과한다.

(나)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창조되었다. 그들은 창조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중에는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 선량한 식민지 주민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 식민지 연합이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이며 그럴 권리가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보기>

- ㉠ 렉싱턴 전투가 발생하였다.
- ㉡ 보스턴 차 사건이 일어났다.
- ㉢ 영국이 7년 전쟁에서 프랑스와 싸웠다.
- ㉣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⑤ ㉢, ㉣

프랑스 대혁명(1789 ~ 1799)

01. 혁명 전의 프랑스

- 구제도(Ancien regime)의 모순(0.5% : 1.5% : 98%)
- 계몽사상의 확산
: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권리 추구
- 재정 적자 심화
: 미국 독립 전쟁 지원(영국에 선전포고, 1778)
: 왕실의 사치 생활



〈구제도의 모순〉

02-1. ★혁명의 전개

- ① 루이 16세(재위 1774 ~ 1792), 삼부회 소집(1614년 이후 처음 소집, 1789. 5월 5일)
- 성직자, 귀족에게 과세하는 재정 개혁 시도
: 제1 신분(291명), 제2 신분(285명), 제3 신분 대표(578명)
: 표결 방식을 둘러싼 각 신분 대표들 간의 대립(제3 신분 대표들은 머릿수 표결 주장) → 결렬

② 국민 의회(1789. 6월 ~ 1791. 10월)

- 제3 신분 대표들이 헌법 제정, 질서 회복 등을 담은 ‘테니스 코트의 서약’ 발표(1789. 6월 20일)
- 국왕의 국민 의회 탄압
-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혁명 발발(화약 확보, 1789. 7월 14일)
: 콩코르드 다리(Pont de la Concorde) 건설
- 혁명의 지방 확산 → 농민들의 귀족 공격, 장원 문서 소각
- 봉건적 특권의 폐지 선언(1789. 8월 4일)
-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 1789. 8월 26일) 채택
: 라파예트(1757 ~ 1834) 기초
: 자유와 평등, 저항권, 국민 주권의 원리, 법 앞에서의 평등, 소유권의 신성함 등 천명
- 베르사유 대행진(1789. 10월 5일)
: 부녀자 중심의 민중 주도, 루이 16세를 파리 툴리리(Les Tuileries) 궁전으로 데리고 와 감시
- 교회 재산 몰수, 길드 폐지, 행정 구역 개편 등 개혁 단행
- 바렌스 사건(Affair Varennes, = 바렌 도주 사건, 1791. 6월 20일)
- 입헌 군주제와 재산에 따른 제한 선거제에 기초한 새 헌법 제정(1791. 9월)

▣ 『8월 법령』 제1조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인신 예속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무상으로 폐지된다. 그 밖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유상 폐지의 대상이다. 이 법령으로 폐지되지 않는 권리와 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지속된다.

③ 입법 의회 소집(1791. 10월 ~ 1792. 9월)

- 지롱드파(부르주아의 지지)의 주도권 장악
- 혁명전쟁 발발(1792. 4월)
: 오스트리아·프로이센의 군사적 위협
: 지롱드파, 오스트리아에 선전 포고
: 젊은 의용군의 파리 집결, ‘라 마르세예즈(La Marseillaise)’
: 발미 전투(Bataille de Valmy, 괴테 從軍, 1792. 9월 20일)

▣ 지롱드파(Girondins)

입법 의회 시기 정국을 주도한 온건파로 재산권을 옹호하면서 통제 경제를 반대하였다. 원래 국민 의회 결성 당시에는 좌파였던 자코뱅파(Jacobins)에 속해 있다가 온건한 입장을 취하며 갈려져 나왔다.

프랑스 대혁명(1789 ~ 1799)

02-2. ★혁명의 전개

① 1792. 8월 10일의 혁명

- 식량 부족으로 파리 민중(상퀼로트, sans-culotte)의 킬트리 왕궁 습격
: 왕권 정치, 입법 의회의 루이 16세 퇴위 공표(1792. 8월)



〈상퀼로트〉

② 국민 공회 수립(1792. 9월 21일)

- 군주제 폐지, 공화정 선포(제1 공화정, 1792. 9월 22일)

열흘 전 왕정이 폐지되었다. 성직자도 귀족도 사라지고 평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기들만을 위한 공화국을 세워 부자와 관리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려는 사이비 애국자와 국민 전체의 이익과 평등을 위하여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진짜 애국자를 구별하라. - 로베스피에르,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자코뱅파(Jacobins, = 급진파 · 산악파)의 정권 장악(당통 · 마라 · 로베스피에르, 1792. 12월)
- 루이 16세 처형(1793. 1월 21일)
- 영국, 오스트리아, 프로이센 등 제1차 대프랑스 동맹 결성
- 혁명 재판소 설치(1793. 3월 10일), 공안위원회 설치(1793. 4월 6일), 마라의 죽음(1793. 7월)
- 자코뱅헌법 제정(공화제 · 보통 선거제 등 규정, 1793. 8월 19일)
- 물가 급등, 생필품 부족 → 최고 가격제 등 통제 경제 정책 실시(1793. 9월 26일)

③ 공포 정치(1793. 9월 ~)

- 자코뱅파(공화정 지지, 중소 시민 · 농민과 결합)의 에베르와 로베스피에르(1758 ~ 1794) 주도
- 마리 앙투아네트 처형(1793. 10월 16일), 당통 처형(1794. 4월 4일) 등 반혁명 세력 제거
- 봉건적 공납의 무상 폐지, 토지 분배, 징병제 도입, 의무 교육 실시 등 급진적 개혁 추진

④ 테르미도르의 반동(혁명력의 11월, 1794. 7월 27일)

- 발라스, 탈리앙, 프레롱 등 온건 공화파 주도의 쿠데타
- 로베스피에르 처형



〈테르미도르의 반동〉

⑤ 총재 정부 구성(1795. 10월 ~ 1799. 11월)

- 5명의 총재가 행정을 담당하는 집단 지도 체제 형성
- 재정난 극복을 위한 대외 팽창 정책 실시
: 나폴레옹(1769 ~ 1821)의 이탈리아(1796), 이집트 원정(1798)
: 제2차 대프랑스 동맹 결성(1799)

⑥ 나폴레옹의 브뤼메르 18일의 쿠데타(안개의 달, 1799. 11월)

- 총재 정부를 무너뜨리고 통령 정부 수립 → 프랑스 혁명 일단락, 나폴레옹의 제1 통령 취임

03. 혁명의 의의

-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고 시민 사회와 자본주의 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
- 자유, 평등, 우애(박애)의 혁명 이념 → 노예제 폐지 선언, 세계 민주주의 발전에 영향



『제3 신분이란 무엇인가(1789)』

제3 신분은 무엇인가? 전체이다. 그러나 족쇄가 채워지고 억압받고 있는 전체일 뿐이다. 특권 신분이 없다면 무엇이 될까? 전체, 그러나 자유롭고 건강한 전체가 될 것이다. 이들이 없다면 되는 일이 아무 것도 없을 것이다. …… 그러므로 제3 신분은 국민에게 속한 전체를 포괄한다. 그리고 제3 신분이 아닌 모든 것은 국민에게 속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제3 신분은 무엇인가? 전체이다.

- 시에예스(1748 ~ 1836)

프랑스의 혁명 전야

(1789년) 7월 12일, 나는 마침 한 불쌍한 여자와 함께 가게 되었다. 그녀는 시국을 한탄하면서 나라꼴이 비참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였다.

“우리는 겨우 한 뼘밖에 안 되는 토지에다 소 한 마리와 비쩍 마른 망아지 한 마리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주 한 사람에게 밀 1프랑샤르(약 19kg)와 암탉 세 마리를 지대로 바쳐야 하고, 또한 사람의 영주에게는 밀 4프랑샤르(약 76kg)와 암탉 한 마리와 1수의 돈을 바쳐야 합니다. 이 밖에도 무거운 인두세와 공납이 있지요. …… 인두세니, 봉건적 권리니 하는 것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 아서 영(1741 ~ 1820), 『프랑스 여행기』(1792)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 1789. 8. 26.)』

제1조 인간은 자유롭게, 그리고 평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으며 늘 그렇게 살아간다. 따라서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가 아니면 사회적 차별을 둘 수 없다.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인간의 자연권을 보전하는 데 있다. 그 권리는 자유, 재산, 안전 및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

제3조 모든 주권의 근원은 본질적으로 인민에게 있다. 어떤 집단이나 개인을 막론하고 인민으로부터 직접 유래하지 않은 권한은 행사할 수 없다.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자를 통해 법의 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법은 보호하는 경우든 처벌을 가하는 경우든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능력, 덕성과 재능에 따른 차별 이외에는 공적인 위계, 지위, 직업 등에 평등하게 취임할 수 있다.

……

제17조 소유권은 그 무엇도 침해할 수 없는 신성한 권리이므로 공적인 필요성이 명백히 존재하며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또 미리 적당한 보상을 제시한 경우가 아니면 누구도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프랑스 혁명기 정치 구조의 변화



개념 Check

- ① 루이 16세가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를 소집하였으나, 제3 신분은 기존의 신분별 표결 방식을 거부하고 머릿수 표결을 주장하였다.
- ② ()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인권 선언)’을 발표하여 혁명의 이념을 천명하였다.
- ③ ()년 8월 자코뱅파는 공화제와 보통 선거제에 기초한 헌법을 제정하였다.
- ④ 로베스피에르(1758 ~ 1794)는 혁명 재판소와 공안 위원회를 강화하는 등 ()를 실시하였다.
- ⑤ 테르미도르의 반동으로 로베스피에르를 타도한 온건파 의원들은 공화제와 선거제를 규정한 헌법을 제정하고 5인의 ()를 수립하였다.

유형 CHECK!!

01

(가), (나) 문서가 작성된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2020-수능]

(가) 봉건제를 완전히 폐지한다. …… 인신 예속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무상으로 폐지된다. 그 밖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유상 폐지의 대상이다. …… 이 법령으로 폐지되지 않는 권리와 의무는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지불할 때까지 지속된다.

- 『8월 법령』제1조

(나) 열흘 전 왕정이 폐지되었다. 성직자도 귀족도 사라지고 평등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자기들만을 위한 공화국을 세워 부자와 관리의 이익을 위해 통치하려는 사이비 애국자와 국민 전체의 이익과 평등을 위하여 공화국을 건설하려고 애쓰는 진짜 애국자를 구별하라.

- 로베스피에르, 『유권자들에게 보내는 편지』

- ① 바스티유가 함락되었다.
- ② 입법 의회가 소집되었다.
- ③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다.
- ④ 공안위원회가 설치되었다.
- ⑤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이루어졌다.

02

(가), (나) 의회가 활동하는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2019-6월 모의평가 변형]

- 루이 16세가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삼부회(삼신분회)를 소집하였으나, 표결 방식 등을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하였다. 이에 제3 신분 대표들을 중심으로 (가)이 구성되었다.
- 루이 16세 일가가 국외로 탈출하려다 발각되면서 국왕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었다. 그런 가운데 입헌 군주제를 규정한 헌법이 제정되었고, 이에 따라 (나)이 새로 구성되었다.

- ① (가) - 총재 정부가 수립되었다.
- ② (가) - 루이 16세가 처형되었다.
- ③ (나) - 테니스코트의 서약이 이루어졌다.
- ④ (나) - 혁명전쟁이 시작되었다.
- ⑤ (나) -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일어났다.

나폴레옹 시대(1799 ~ 1815)

[나폴레옹의 집권과 유럽 제패]

01. **통령 정부**[베토벤의 교향곡 3번 『에로이카(영웅)』(1803), 1799 ~ 1804]

- 혁명의 성과를 보존하며 군사·정치적 측면 강화
- **프랑스 은행** 설립(1800) → 국가 재정의 안정 도모
- **대프랑스 동맹 와해**
: 튀네빌 화약(마렝고 전투, 오스트리아 격파, 1801), **아미앵 조약** 체결(~ 영국, 1802)
- 『**나폴레옹 법전**』 편찬(1804)
: 법 앞에 평등, 사유 재산권 존중 등 시민 사회의 새로운 규범 제시
- 국민 교육 제도 정비

02. **제1 제정(1804 ~ 1815)**

- 국민 투표를 통해 황제 즉위(나폴레옹 1세)
- 제3차 대프랑스 동맹 결성(1805. 8월)



〈노트르담 대성당, 나폴레옹의 대관식〉

03. **유럽 제패 시도와 몰락(1805 ~ 1815)**

- **트라팔가르 해전 패배**(⇨ 영국, 넬슨 제독, 1805. 10월)
- **아우스터리츠 전투 승리**(⇨ 오스트리아·프로이센·러시아, 1805. 12월)
- **신성 로마 제국 해체(1806)** ⇨ 라인 동맹 결성(Rheinbund, 1806. 7월)
- **대륙 봉쇄령**

- : 영국과의 통상 금지, 프랑스의 상품 시장 확대
- : 영국의 상품이 밀수입 되어 대륙 국가의 고통 증가
- **모스크바 원정(1812. 5월)**
: 러시아가 대륙 봉쇄령을 무시하고 영국과 통상 지속
: 원정 실패 → 제4차 대프랑스 동맹 결성
- **라이프치히 전투 패배(1813. 10월)**
: 엘바 섬 유배(1814. 5월)
- 엘바 섬 탈출(1815. 2월)
- **워털루 전투 패배(1815. 6월)**
: 영국·프로이센 연합에 패배
: 세인트헬레나 섬 유배

▣ 대륙 봉쇄령[베를린(1806) ⇨ 밀라노(1807)]

1. 영국 여러 섬에 대한 봉쇄를 선포한다.
2. 영국과의 모든 교역과 서신 왕래를 금지한다.
3. 모든 영국민은 신분과 조건을 막론하고 우리와 동맹국의 군대에 의해 점령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즉시 전쟁 포로가 될 것이다.
4. 영국민의 창고와 상품은 합법적인 전리품으로 간주된다.

04. 나폴레옹 시대의 역사적 의의

- 프랑스 혁명 이념의 전파
: **자유주의 이념 확산**
- 프랑스의 침략에 대한 저항 의식
: **유럽 각국의 민족주의 고양**
: 피히테, 『독일 국민에게 고함』(1806)



〈나폴레옹 시대의 유럽 정세〉

개념 Check

- ① () 시기 나폴레옹은 1800년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고, 1804년 『나폴레옹 법전』을 편찬하였다.
- ② 나폴레옹 군대는 대프랑스 동맹을 주도한 영국에 맞서 () 해전을 치렀으나 패배하였다.
- ③ ()년 나폴레옹은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의 연합군을 격파하고 신성 로마 제국을 해체시켰다.
- ④ 나폴레옹은 영국을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을 발표하였고, 1812년 이를 위반하는 러시아를 원정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유형 CHECK!!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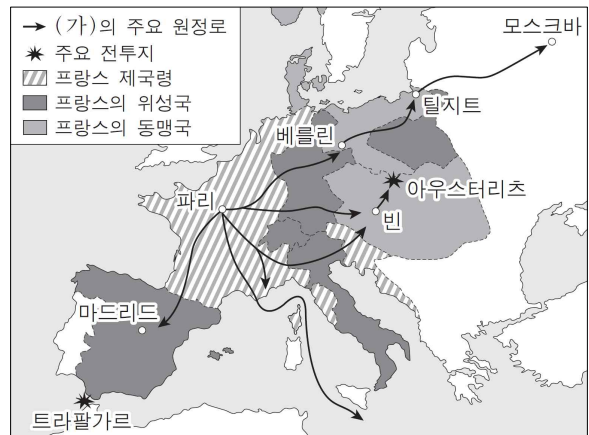
(기)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20-수능원성 변형]

“카이사르가 등장할 것이다.”
로베스피에르의 예언은 적중하였다. 로베스피에르 처형 이후 수립된 정부를 브뤼메르의 쿠데타로 무너뜨린 그는 제1 통령에 취임하였다. 이후 새로운 헌법을 통해서 종신 통령이 되었으며 다시 국민 투표에 의해 황제로 즉위하였다. 황제가 된 이후 그는 (기)

- ① 프랑스 은행을 설립하였다.
- ② 러시아 원정을 단행하였다.
- ③ 워털루 전투에서 패배하였다.
- ④ 라인 동맹(Rheinbund)을 결성하였다.
- ⑤ 영국을 겨냥해 대륙 봉쇄령을 내렸다.

02

(기)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17-수능 변형]



- ① 뤼네빌 화약으로 오스트리아를 굴복시켰다.
- ② 총재 정부를 수립하였다.
- ③ 이집트 원정을 단행하였다.
- ④ 워털루에서 전투를 벌였다.
- 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황제로 즉위하였다.

▣ 나폴레옹에 대한 평가

- 나는 얼마 전 프로이센의 부패한 관료 제도를 파괴하고 있는 나폴레옹을 보고 ‘살아 있는 세계정신’ 이라며 감격한 바 있다. 보편적인 프랑스 혁명을 전파하는 그의 앞길에 영광이 있으라.
- 헤겔(1770 ~ 1831)
- 지금 독일은 나폴레옹군의 침략을 받아 나라에 빠져 있다. 나폴레옹은 그가 가진 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다른 나라의 주권과 자유를 짓밟는 침략자에 불과하다.
- 피히테(1762 ~ 1814)